“아파트가 확~ 달라졌어요”

광주시, 150억 투입 영구임대주택 새단장 사업 추진

외관 디자인·창호·놀이터 정비…주민들 ‘함박웃음’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가 산뜻하게 탈바꿈하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20년 가까이 건립 당시 모습으로 방치됐던 영구임대아파트들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주거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숙원사업인 외관 디자인 개선은 물론 찬바람을 막아주는 창호 설치,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따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3단지가 복도 창호를 새로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단장해 산뜻하게 바뀌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하남 시영아파트 201동 앞에서 만난 이모(여·52)씨는 복도에 새로 설치된 바람막이 창호와 아파트 외벽을 바라보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과거에는 바람이 복도로 바로 스며들어 을씨년스러웠지만, 바람막이 창호 설치 후 이제는 주민들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이씨는 “낡은 아파트 외벽을 새 단장하고 나니, 마치 새 아파트로 이사 온 것 같다”며 “해마다 겨울이면 동파 사고와 감기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올해는 별다른 걱정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도 덩달아 줄었다. 39.6㎡ 크기의 한 달 평균 난방비는 5만9천800원이었는데, 공사 후에는 4만7천300원으로 1만2천500원(21%) 가량 감소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307동 김모(여·61)씨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벽면에는 밝은 색 계통의 새 벽지로 단장돼 있었다. 방바닥의 장판도 새로 교체됐다. 김씨는 “현관 출입문을 자주 열어 두는데, 자연스럽게 이웃 주민들끼리 오가면서 사이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510세대가 거주하는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3단지 내·외부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난방 배관과 수도계량기가 교체됐고, 어린이놀이터(면적 345㎡) 바닥이 유해물질이 없는 탄성 고무판으로 바뀌었다.

또 아파트 복도와 어린이놀이터 등 11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면서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처럼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증진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자, 지난해 130억원에 이어 올해도 시비 20억원을 투자해 쌍촌 시영아파트(500세대), 금호 시영아파트(1천500세대), 하남 시영아파트(1천500세대) 등의 사회복지관 개보수,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는대로 사업 범위와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일반 아파트와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정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어 이후 국비 확보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대졸 취업률 보건·의료분야 90~100%

전문대는 건설·교통 높아

지난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보건·의료, 건설·교통, 생명과학 등의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별 특성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특성화 분야(학과)는 4년제 대학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로 83.9%를 기록했다. 이어 건설·교통(77.2%), 생명과학(76.4%), 기계·전기·전자(75.8%), 농림수산식품(74.6%), 화공 (73.5%) 등의 순이었다.

광주지역 대학교의 보건·의료 분야 취업률은 90~100%에 달했다.

동신대의 보건·의료 분야 취업률은 한의학과가 94.9%였으며 간호학과 92.3%·언어치료학과 95.5%·물리치료학과 91·5% 등으로 타 분야 취업률 보다 월등히 높았다.

광주여대 간호학과와 작업치료학과의 취업률은 각각 100%였다.

전문대에서는 건설·교통(95.2%), 전기·전자(92.4%), 보건·의료(90.7%), 문화·예술·체육(90.5%), 농림수산식품(88.7%), 기계(88.5%) 등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전체 취업률 평균은 대학이 69.7%, 전문대학이 85.6%로 전문대가 15% 포인트 이상 높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광태 시장 영화 ‘식객-김치전쟁’ 카메오 출연

자막엔 ‘김광태 광주광역시장’으로 소개 ‘빈축’

박광태 광주시장이 영화 ‘식객-김치전쟁’에 카메오로 출연했으나 출연진 자막에는 ‘김광태 광주광역시장’으로 잘못 소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가 3억원을 지원한 이 영화에 박 시장은 김치찌개집 주인으로 깜짝 출연, “삼대가 다 모여도 이 김치찌개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니까”라는 대사를 소화했다.

광주시는 뒤늦게 영화사 측에 수정을 요구, 우선 광주 시내 13개 필름 영화관은 문제의 장면을 ‘필름 컷팅’ 방식으로 삭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영화관과 타 지역 상영관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사측에 수정을 요구해 영화제작사와 배급사측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강대 총학 퇴출

선거 절차 위반…전국 처음

서강대가 선거세칙 위반으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총학생회를 선출 절차를 문제삼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격 퇴출하기로 해 대학가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강대는 최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장학지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8~9일 재투표로 당선된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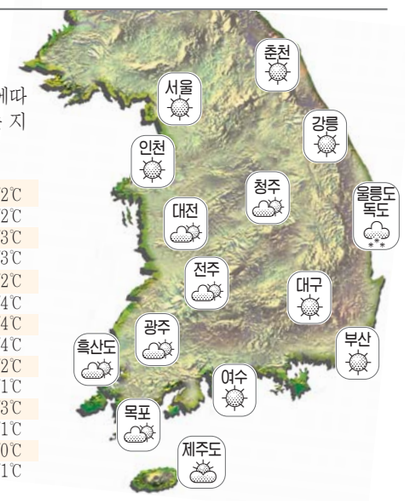
서강대는 지난해 12월 첫 총학 투표에서 선거인 명부가 없어지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선거세칙 위반 문제가 불거져 선관위가 두 차례나 교체되는 진통 속에 재투표를 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뜸 07시 30분 해짐 18시 03분 달뜸 --시 --분 달짐 10시 07분

입춘(立春)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곳에따라 오전 한때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흐린뒤 맑음	−5/2℃
목 포	흐린뒤 맑음	−4/2℃
여 수	구름 조금	−4/3℃
완 도	구름 조금	−4/3℃
구 례	구름 조금	−7/2℃
해 남	구름 조금	−6/4℃
장 흥	구름 조금	−6/4℃
고 흥	구름 조금	−5/4℃
순 천	구름 조금	−5/2℃
영 광	흐리고 한때 눈	−6/1℃
진 도	흐린뒤 맑음	−4/3℃
전 주	흐린뒤 맑음	−6/1℃
남 원	흐린뒤 맑음	−8/0℃
흑산도	흐린뒤 맑음	−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5:43 17:52	10:46 23:05
여수	00:19 12:27	06:16 18: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 씨						
최저/최고	−5/4	−4/6	−2/8	4/10	3/12	5/11

입춘 한파…광주·전남 눈발

최저기온 영하 7도

입춘(立春)인 4일 광주·전남은 종일 쌀쌀하겠으며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함평 등 서해안 지방에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3일 예보했다. 예상적설량은 1㎝ 내외. 기상청은 광주를 비롯한 내륙지방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영하권을 맴도는 이번 추위가 5일 낮부터 한풀 꺾인 뒤, 주말인 6일부터 평년기온(최저기온 영하 9도~0도, 최고기온 3~8도)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여수시와 광양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거셀 것으로 예상돼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